

<부산에가다>

글:전민찬

오늘은 부산에 간다. 부산까지 가는데 3시간30에서 4시간이 걸린다. 일단 호텔에 짐을 내리고 밥을 먹으러 국밥맛집을 가고 그다음 충렬사로 갈 것이다.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간다. 그동안 내가 가는 호텔, 맛집, 그리고 충렬사에 대해 찾아 볼 거다. 호텔은 시그니엘 부산 1박당 약30 만원이다 근데 비싼 만큼 좋다느 평이 많다. 다음 국밥집은 사진으로 볼땐 맛있어 보인다. 충렬사는 가서 봐야겠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하였다. 일단 짐을 풀고 좀 쉬다가 국밥집을 가기로 했다 나는 그동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것이다 “와 근데 뷰가 좋네 ” 이제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었는데 맛집답게 맛있었다. 오늘은 자고 내일 충렬사에 갈거다. 다음날.....

나는 충렬사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역사가 담긴 절이다. 여기에는 유명한 동상이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을 추모하기위해 만들었다.

이제 집에 가야한다 다음에 또 부산에 온다면 더 둘러 볼 것이다.